



'이승엽 신드롬' 후반기에도 계속된다



■ 이승엽 전반기 결산

홈런(29호)·득점(70점) 1위

최다안타(109개)·장타율(0.638) 2위

타격(0.323) 3위·타점(64점) 4위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19일 한신 타이거스전을 끝으로 눈부신 전반기를 마감했다.

이승엽은 지난 19일 오사카 인근 고시엔구장에서 벌어진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방문경기에서 4타석에 들어서 볼넷 1개를 얻었지만 삼진 1개와 2개의 번타를 때리는 데 그쳤다. 요미우리는 이날 한신에 0-1로 패해 38승 2무49패로 전반기 5위에 머물렀다.

이승엽은 전반기 30홈런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양리그 통틀어 최다인 29홈런을 쏘아올렸다. 한일통산 400홈런에는 3개가 남았다.

● 이승엽 연도별 성적

연도(소속)	경기	출루(좌완 상대)	타율(좌완 상대)	타점	득점	사사구	삼진
2004(롯데)	100	14(2)	0.240(0.225)	50	50	45	88
2005(롯데)	117	30(4)	0.260(0.216)	82	64	34	79
2006(전반기) (요미우리)	88	29(9)	0.323(0.344)	64	70	33	79

또 타격 3위(0.323), 최다안타 2위(109개), 타점 4위(64점), 장타율 2위(0.638), 득점 1위(70점)를 질주하는 등 요미우리 4번타자로 맹활약하며 일본 진출 3년 만에 일본 야구를 평정했고

이는 이승엽이 올 시즌 88경기에 출전해 올린 기록으로 117경기에 출전해 수립한 지난해의 성적을 넘어섰다. 지난 시즌에는 타율 0.260, 안타 106개, 득점 64점, 타점 82점을 기록했다.

지난 2년간 활약했던 퍼시픽리그 지바 롯데 마린스를 떠나 일본 최고 명문구단 센트럴리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새 동지를 둔 이승엽은 이적과 동시에 거인군단에서 역사상 70번째 4번타자로 낙점됐고 그 임무를 120% 이상 수행했다.

득점권 타율도 0.320에 달해 찬스에서도 해결사 몫을 충분히 해냈다. 이런 맹활약 속에 요미우리와 1년 계약한 그가 시즌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야구 스포츠의 칼럼니스트 제프 파산은 이승엽이 3년간 2천100만 달러를 받을 만한 재목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메이저리그 여러 구단에서 이승엽에게 군침을 흘리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요미우리는 눈 앞에서 이승엽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

와타나베 쓰네키 요미우리 회장은 이미 이승엽이 최고의 타격감을 과시하던 4월초 그를 시즌 후 불잡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가 현 페이스를 시즌 끝까지 이어간다면 미국과 일본 양국에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할 확률이 커 올해 말 행복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독추천으로 2년 연속 올스타전에 출장하는 이승엽은 21일과 22일 각각 도쿄 메이저 리그 구장과 미야자키 선마린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별들의 축제'에서 최고 왕별에 도전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06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천안 KB 국민은행 대 용인 삼성생명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삼성생명 박정은(오른쪽)이 국민은행 신정자의 마크를 피해 골밑돌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우승

대한불림협회장배 남자 5인조

광주시체육회 남자불림팀이 제8회 대한불림협회장배 남자 5인조전에서 우승했다.

광주시체육회 남자불림팀은 지난 19일 인천 동남불림장에서 열린 남자 5인조전에서 박기정·정현철·정원호·최범수·양승준 선수가 조를 이뤄 합계 6.395점을 기록해 2위 대구북구청을 258점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또한 광주시체육회 남자 불림팀은 2인조전에서 박기정·김준형선수가 조를 이뤄 합계 2.545점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씨름왕' 이태현 모래관 떠난다 용인대 강단에 설 듯

'모래관의 황태자'로 불리며 씨름관의 최강자로 군림해온 이태현(30·현대삼호중공업·사진)이 은퇴한다.

이태현은 8월 6일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제천장사대회를 앞두고 은퇴를 결정했고 소속팀 현대삼호중공업도 20일 한국씨름연맹에 이태현의 은퇴를 통보했다.

올해 용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태현은 은퇴 뒤 용인대에서 강단에 설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현을 지도해 왔던 김철규 현대삼호중공업 감독은 "용인대에서 제의와 씨름 코치와 시간 강사를 겸임하기 위해 은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씨름연맹은 다음달 열리는 제천장사대회 때 은퇴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금)

▲KB 스타투어 골프 2차대회 2R(11:00·MBC ESPN)

▲메이저리그<뉴욕Y-토론토>(08:00·Xports), <샌디에이고-샌프란시스코>(11:05·Xports)

▲전국여자자궁구 선수권대회 초·중등부 결승(09:00·KBS SKY SPORTS), 고등부 결승전(13:00·KBS SKY SPORTS)

▲전국 검도선수권(14:10·KBS1)

▲남해 상주 비치발리볼 1일제(15:00·KBS SKY SPORTS)

▲일본 프로야구 올스타전 1차전(18:00·SBS스포츠)

22일(토)

▲브리티시오픈 2R(01:45·KBC)

▲PGA 투어 B.C 오픈 2R(05:00·SBS스포츠)

▲KB 스타투어 골프 2차대회 3R(11:00·MBC ESPN)

삼성생명 '먼저 1승'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챔피언 1차전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이 통산 5번째 우승을 향한 첫 단추를 꿰었다.

삼성생명은 20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이마트배 2006 여름리그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에서 접전 끝에 천안 국민은행을 66-60으로 꺾고 첫 승리를 올렸다.

적지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얻은 삼성생명은 22일 용인 홈구장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을 갖는다.

1쿼터 때만 해도 삼성생명의 분위기가 좋았다. 삼성생명이 자랑하는 중거리포 변연하는

3점슛 2개를 포함해 8점을 몰아넣었고 박정은도 6점을 보냈다.

센터 바우터스도 국민은행의 주득점원 스테파노바를 2점에 묶어 두고 6점을 넣어 정선민의 골밑 돌파를 앞세운 국민은행에 20-15로 앞서 나갔다.

하지만 2쿼터에 스테파노바가 살아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국민은행은 3쿼터 종반까지 주도권을 잡아나갔지만 변연하, 박정은, 바우터스, 김세룡, 이종애 등 주전들이 고른 활약을 펼친 삼성생명은 56-49로 재 역전에 성공하며 4쿼터에 들어갔고 결국 66-60으로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재응 시즌 8패

서재응(29·탐파베이 데블레이스)이 이적 후 첫 승 도전에 또 실패했다.

서재응은 20일(이하 한국시간)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허버트 험프리 메트로돔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방문경기에서 5.2이닝 동안 홈런 2방을 포함해 안타 11개를 맞아 7점을 잃었다. 시즌 2승8패에 평균 자책점은 5.44(종전 5.07)로 치솟았다.

김재박 감독,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맡아

김재박(52·사진) 현대 감독이 오는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2006 아시안게임 때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게 됐다.

신상우 KBO 총재는 20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오는 12월 1~16일 도하 아시안게임에 나갈 대표팀' 사령탑으로 김재박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 1996년 현대 창단 감독으로 취임해 4차례 소속 팀을 한국시리즈 정상



으로 이끄는 등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아시안선수권대회 때는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으나 한국이 일본과 대만에 이어 3위의 성적으로 2004아테네올림픽 티켓을 놓쳤다.

7월 9일 공무원

40년 전국최고급 전문 교육기관

www.gnamm.com

부경철직

www.j2v.com

www.gnamm.com

중개사

www.gnamm.com

www.gnamm.com

경제회센터

www.gnamm.com

www.gnamm.com

전립선

www.j2v.com

www.gnamm.com

호남지사

www.gnamm.com

www.gnamm.com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을 망수전문!

www.gnamm.com

www.gnamm.com